



정읍시 연지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개최

정읍시 연지동 주민자치회(회장 허종성)는 연지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3년 제1회 연지동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이수수 시장과 주민자치위원, 연지동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내년도 주민자치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총회는 주민자치회 운영경과보고와 2024년 주민자치사업 계획에 대한 안건설명 및 주민 의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선정된 주민자치사업은 들판순에 따라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행복 여행', '지역 내 우범지역 LED 센서등 설치'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총회에서 선정된 주민자치사업 계획안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2024년도 예산에 편성해 연지동 주민자치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무주경찰서, 관리자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무주경찰서(서장 남기재)는 지난 5일 경찰서 4층 강당에서 무주서장, 각 과(계)장, 파출소장 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덕진경찰서 시민청문관인 정석봉 행정관을 초빙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갑질 예방 등 공직자가 알아야 할 주요 청렴 관련 법규 내용을 알아보았으며, 주요 사례에 대한 토론도 실시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 장애인 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남원시는 지난 5일 이백문화체육센터에서 2023 남원시 장애인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장애인 체육대회에는 장애인 체육선수와 보호자 490여명이 참여했으며,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김제시에서 열리는 제17회 전라북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식을 겸해 진행하였다.

경기는 유형별 단체경기(8종목)와 한마음 단체경기(7종목) 2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총 15개 종목의 경기를 진행하였으며, 장애인 체육 동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진정한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국 대학생 태권도 학술경진대회 개최

한양대, 최우수상 수상… 태권도 학술분야 활성화 지원·아이디어 공유로 발전 도모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지난 3일 태권도원에서 개최한 '전국 대학생 태권도 학술경진대회' 본선에서 한양대학교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3 대 1의 경쟁률을 끊고 본선에 참가한 6개 팀 중 한양대학교(박민성, 흥두영, 백승영)는 '국내외 유튜브 빅데이터 기반 태권도 인식 조사를 통한 리커버리 디자인 영상관 인터페이스 최적화 연구(코로나 전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우수상에는 서울대학교(김민서, 조은세상, 유여진)와 신한대학교(김보경, 김보나, 박수영)가, 장려상은 신한대학교와 전주대학교 등 3개 팀에게 돌아갔다.

9월 4일 태권도의 날을 기념,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대회는 태권도 학술분야 활성화를 지원하고 태권도 및 체육 전공생 또는 동아리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태권도 발전에貢貢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본선에는 허건식 용인대학교 교수를 심사 위원장으로, 송남정 우석대학교 교수, 엄재영 대한태권도협회 이사, 김지혁 광주대학교 교수, 나채만 경동대학교



교수, 국립태권도박물관 김태균관장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태권도 발전을 위한 후학들의 발표를 공정하게 평가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올해 학술경진대회는 지난 해 보다 참가팀이 증가했고, 연구의 깊이 또한 눈에 띄게 발전해 고무적이다"며 "대학생들의 뛰어난 학술열기와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진흥재단은 본선에 오른 6개 팀의 발표 주제를 국립태권도박물관 누리집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임실군, 수산종자 260만 마리 방류

임실군이 지난 7월부터 내수면 어족자원을 방류하여 어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관내에 속한 섬진강을 비롯한 오수천, 둔남천 등 공공용 수면에 수산종자 260만 마리를 방류했다.

방류는 디슬기 200만, 봉어 60만, 쏘가리 5천 마리를 환경 보호 국민운동본부(박만식 외 11명), 어업계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

이번에 방류한 디슬기(각고 0.7cm), 봉어(4cm), 쏘가리(7cm)는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친 건강한 종자로서 짧게는 6개월 정도 지나면 어민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소방서, 캠프장 화재 예방 안전수칙 준수 당부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6일 본격적인 캠핑 시즌이 돌아온 가을을 맞아 캠프장 화재안전 수칙을 알리며 화재 경각심을 가지도록 당부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간 캠핑 관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3명, 부상 20명이 발생하고, 건수는 2020년 43건에서 지난해 71건으로 1.6배가량 증가. 원인은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이 43건, 불씨 등 회원방치가 32건, 과열 등 기계적 요인이 21건이었다.

캠핑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수칙에는 △모다불 사용 전주변에 나무, 기름, 가스 등 가연성 물질이 있는지 확인 △텐트에서 떨어진 곳에서 불 피우기 △바베큐 많이 부는 날에는 화기 취급에 각별한 주의 △흔들리지 않는 곳에 화로 대 설치 △불을 사용한 다음에는 불씨를 확실히 끄기 △텐트 안에서 가스레인지 사용금지 등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치매 어르신 '맞춤형 행복여행' 떠나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관내 치매 어르신들에게 기울맞이 행복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은 활동 반경이 좁아진 치매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신체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한다는 취지다.

이번 맞춤형 행복여행은 지난 5일~6일(2일간) 치매 어르신 및 그 가족 40여 명을 대상으로 전북 익산 고스락 수목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세부 일정으로 고주장 만들기와 사과식초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고 체험장 주변 수목원을 산책하면서 추억의 앨범 촬영을 진행했다.

맞춤형 행복여행에 참여하신 죽산면 이모(88)씨는 "집에만 있어 답답했는데, 다양한 체험활동과 너무나도 이름다운 수목원 산책을 하면서 앨범 촬영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이름다운 추억이 생겼다"고 말했다.

김제시 치매안심센터 치매사례팀은 이번 행복여행 대상자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고 여행 장소와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며, 한번의 여행으로 끝나지 않도록 앨범 촬영을 진행하여 행복한 추억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역사회 치매 어르신들이 이번 행복

여행을 다녀와서 행복한 추억이 가족들과 함께 오랫동안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치매에 대한 궁금증은 김제시 치매안심센터(540-1327) 또는 365일 24시간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고, 전반적인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소방서, "승강기 이용 시 안전수칙 준수해야"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가 최근 승강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승강기 이용 시 주의사항을 홍보하며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2년) 승강기 사고 출동 건수는 1248건 828건이며 구조된 인원은 818명 249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29명, 부상자 235명에 달한다.

승강기 이용 안전수칙은 △정원 및 적재하중의 초과 금지 △승강기 내에서 뛰거나 구르는 행동 자제 △도어개폐기 출입문에 손이나 옷이 팔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문턱에 이물질이 끼거나 틈새에 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등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구를 사랑하게 하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